

지면안내 03 사회  
모두의 화상실,  
지나쳤던 일상의 권리를 찾아

04 문화  
돌고 돌아 다시 'K-음식'이다

05 사람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 스포츠를 선사하다

08 광고  
제17회 사진공모전 현상공모

## 올해 첫 간담회 열렸다



▲이창원 총장(좌), 김승희 총학생회장(우)

‘2023학년도 제1차 학생대표 정기 간담회’가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에서 지난 12일 개최됐다. 대학본부 관계자 14명과 학생대표 10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사구조 부문 ▲수강신청 및 수업 부문 ▲생활 및 복지 부문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 학사구조 부문 안건

- 트랙명 변경 제공지
- 기계전자공학부 분할 요구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이하 인문예

술대) 학생회 측에서는 트랙명이 자주 바뀌어 따라 많은 학생이 혼선을 겪는 점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현우(인문 4) 인문 예술대 학생회장은 “글로벌역사트랙은 역사문화콘텐츠트랙으로, 역사문화콘텐츠트랙은 역사콘텐츠트랙으로 변경됐다”며 대학본부의 추가적인 공지나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조문석 기획조정처장은 “이전에 e-class를 통해 공지한 바 있었다”면서도 “홈페이지 등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 다시 한번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IT공과대학(이하 공대) 학생회는 기계전 자공학부를 ‘기계공학 관련 과와 전자공학

관련 과로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남혁(기계전자 3) 공대 학생회장은 “두 전공은 학습하는 내용이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연계되는 과목도 없다”며 “신입생들은 두 전공의 수업 내용이 연계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최근 모빌리티 분야 등에서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을 융합한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며 “산업 동향이나 사회 수요, 구성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청 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2면에 계속

정성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 재선거 종료, 16개 학생자치기구 출범

‘2023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재선거(이하 재선거)’가 4월 5일과 6일, 양일간 실시됐다. 3월 22일부터 4월 4일까지는 유세가 이뤄졌으며, 3월 30일에는 정책토론회 및 후보자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재선거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2022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총선거’ 당시 출마한 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무산됐던 ▲동아리연합회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창의융합대학 등이 대상이었다. 미래플러스대학은 이번 재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이번 재선거에는 트랙·학과(부) 학생회의 선출도 함께 진행됐다.

제37대 동아리연합회 선거에는 ‘Re NewAll’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의 전수연(기계전자 4) 정회장 후보와 김지영(뷰티 3) 부회장 후보가 찬성 4010표(82.37%)를 득표해 당선됐다. 본 선거에는 재적인원 6,942명 중 4,868명(70.12%)이 투표에 참여했다. 전 당선자는 “학생들이 동아리에 대한 경험과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당선 포부를 밝혔다.

제27대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학생회는 이번 재선거에서 유일하게 경선으로 치러졌다. 해당 선거에는 재적인원 1,456명 중 1,109명(76.17%)이 투표했으며, 기호 1번 ‘사월’ 선본의 박진성(사회과학 3) 정학생회장 후보와 박상현(사회과학 3) 부학생회장 후보가 549표(49.50%)로 당

선됐다. 기호 2번 ‘어울림’ 선본은 521표(46.98%)를 얻었다. 박진성 당선자는 “학생회의 출범이 늦어진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2대 창의융합대학 학생회 선거에서는 ‘담아’ 선본의 문희정(ICT 3) 정학생회장 후보와 김가령(패션 3) 부학생회장 후보가 찬성 302표(89.61%)를 얻어 당선됐다. 투표에는 재적인원 426명 중 337명(79.11%)이 참여했다. 문 당선자는 “앞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 항상 맑고 바른 모습으로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에서는 ▲영미문학문화트랙 ▲영미언어정보트랙 ▲역사문화콘텐츠트랙 ▲역사콘텐츠트랙의 트랙학생회장, 회학과 부학생회장 무용학과 정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이 선출됐다.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에서는 ▲국제무역트랙 ▲글로벌비즈니스트랙 ▲기업·경제분석트랙 ▲경제금융투자트랙 ▲공공행정트랙 ▲스마트도시계획·환경비즈니스트랙의 트랙학생회장 이 당선됐다. 디자인대학은 뷰티디자인 매니지먼트학과 정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이 당선됐다.

곽동민(사회과학 4)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신중하고 공정한 선거를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70%를 웃도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해 보람찼다”고 말했다.

신지원 기자 idj\_b01@naver.com

## 2023 만우절 행사 성료

만우절 행사가 지난 31일 교내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총학생회 ‘이음’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학생회 ‘구름’ ▲디자인대학 학생회 ‘MOTIVE’ ▲IT공과대학 학생회 ‘늘찬’ ▲본교 공식 홍보대사 ‘하랑’ 등이 각각 부스를 운영했다. 이음과 하랑이 운영한 부스는 학내 구성원 누구나 참여 가능했으나, 단과대학 학생회 부스는 총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만 참여할 수 있었다.

이음은 ‘만우절 게임왕’과 ‘만우절 패션왕’ 등을 진행하며, 크로플도 함께 판매했다. 만우절 게임왕은 여러 종류의 ‘미니게임’ 중 제비뽑기로 하나를 정하고, 이음 부스에 상주하는 인원과 게임을 즐기는 행사였다.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에게는 아플로 등 ‘추

억의 간식’이 지급됐다. 만우절 패션왕은 크로플을 구매하거나 만우절 게임왕에 참여해 수령한 스티커를 가장 특이한 분장이나 복장을 한 학생에게 부착하는 행사였다. 스티커 부착 수가 가장 많은 참가자 3명에게는 상품이 지급됐는데, 1위부터 3위까지 순서대로 ▲MLB 모자 ▲일포드 흑백 필름카메라 ▲팔고당 1만 원 상품권 등이 증정됐다.

구름은 사탕을 매개로 학생들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두근두근 캔디 소개팅’을 진행했다. 또한, 동물 잠옷을 입은 구름의 국원 3명을 모두 찾아 사진을 찍으면 팔고당 쿠폰 등 다양한 상품을 지급하는 ‘함께해요 구름의 숲’도 같이했다.

MOTIVE는 ‘감성군대’ 부스를 운영해 ‘사

격 이벤트’를 제공했다. 전동건으로 사격을 실시하고, 그 기록에 따라 ▲비비큐 황금올리브+1.25L 세트 ▲군용 슬리퍼 ▲로카티 ▲건빵 등의 상품을 지급했다. MOTIVE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디자인대학 필터를 적용해 행사 관련 사진을 스토리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베스킨라빈스 싱글레귤러’ 쿠폰을 증정하기도 했다.

늘찬 부스에서는 교복 등 특이한 분장을 하거나 복장을 착용한 학생들에게 플라모이드 사진을 찍어줬다. 만우절 행사를 즐기는 사진을 늘찬 공식 인스타그램에 태그 스토리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BHC 뿌링클+폴라1.25L 기프트콘’을 지급하기도 했다.

하랑 부스는 하랑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상상부기를 떠올리며 그림을 그리면 솜사탕을 주는 ‘상상부기를 찾아줘!’ 이벤트를 선보였다. 서덕우(사회과학 4) 하랑 회장은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행사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행사에 참여한 조은비(문문 2) 학생은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새롭고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김승희(IT융합 4) 총학생회장은 “4년 만에 대만 행사를 주관했는데, 많은 학생이 참여해 뿌듯하다”며 행사에 참여한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 와이파이 문제 원인 밝혀졌다

교내 와이파이 연결과 관련한 학생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보화팀은 노후 장비의 최신화와 개별 학생의 통합기자재실 방문을 통한 전자기기 점검을 통해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본교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 ‘hansung’을 연결하기 위해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서 여러 차례 종합정보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연결에 실패하는 문제가 반복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학생들은 여러 차례 입력을 시도해야 하는 점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유성(사회과학 3) 학생은 “우선관과 탐구관에서 가장 연결이 되지 않는다”며 “와이파이 연결이 잘 되지 않을 때 개인용 핫스팟을 사용해야 해서 부담스러웠다”고 밝혔다. 또한 임상하(인문 3) 학생은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때가 가장 힘들었다”며 “사람이 몰려 있는 공간에서 잘 연결되지 않는다.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언급되는 문제인데, 탄탄한 서버가 구축되는 등 해결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보화팀에 따르면, 개별 전자기기에 교내 와이파이 연결을 위한 ‘무선인터넷 서비스 접속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아 연결에 결함이 발생한다.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

출을 막기 위해 전자기기에 보안 설정이 필요한데, 무선인터넷 서비스 접속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보안 설정이 가능하다. 이때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해 사용할 때 필요한 ‘무선랜 드라이버’가 노후된 경우, 무선인터넷 서비스 접속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정보화팀의 입장이다.

한편, 정보화팀은 학생의 입력 실수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윤영훈(정보화팀) 팀원은 “와이파이 연결 문제로 인해 점검을 진행하면 사용자 비밀번호 오류 입력이라는 메시지가 확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와이파이 접속 시 종합정보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에도 와이파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보화팀은 상상관 3층에 위치한 통합기자재실에서 개별 전자기기에 대한 점검과 대처를 진행하고 있다. 윤 팀원은 “통합기자재실로 방문한다면 무선랜 드라이버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와이파이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관련 장비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만우절 패션왕에 참가한 학생이 하랑 부스에서 솜사탕을 받고 있다.

# 학생대표 간담회에서 20여 개 안건 논의됐다

## 총장 “반복되는 문제 정리할 필요 有”, 총학 “이후로도 지속적 교류 이어지길”

### 수강신청 및 수업 부문 안건

- 편입생 수강정원 배정 요구
- 교·강사 충원으로 수강정원 확대
- 수업계획서 작성 시기 점검
- 주간·야간 수업 수강 관련 논의
- 일부 트랙 교원·수업 확충 요청
- 녹화 강의 재활용 문제 개선 촉구
- 미플대 관련 개선사항 논의
- 제2외국어 학습 장구 확대
- 교양영어 수업 방식 개선 요청

학생대표 측은 수강신청 및 수업과 관련해 많은 개선사항을 지적했다. 총학생회는 수강정원에 편입생의 몫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승희(IT융합 4) 총학생회장은 “글로벌비즈니스트랙 소속의 한 편입생이 이번 학기 수강신청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해당 트랙뿐 아니라 학교 전반에서 다소 일어나고 있는 문제로 수강정원에 편입생 인원 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성욱 교무처장은 “글로벌비즈니스트랙에 확인한 결과 편입생 인원이 배정되기는 했다”면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해당 트랙의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은경 교학부총장은 이에 대해 “편입생의 수강신청을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함에도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총학생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선행해 달라”고 권고했다.

총학생회는 또한 교양필수 과목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1학년 교양필수 수강정원 확충을 위해 분반 증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학생이면서 1학년인 학생이 교양필수 과목을 서면으로 수강신청하면 거절당하는 일이 많아, 필수 교양 수강이 어렵다는 건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 처장은 “교양필수의 복학생 분반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입생 분반으로 수강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되고 있고, 교·강사 추가 채용을 통해 분반을 증설한다면 교양필수에 관한 학생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강신청 당일까지도 수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도 뒤따랐다. 김 회장은 “이번 학기에 진행된 수강신청에서 수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은 수업이 있었다”며 수강신청 이전에 수업계획서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 처장은 “갑작스럽게 분반이 증설되는 경우 해당 문제가 발생하는 듯 하다”며 “수강신청 장바구니 기간 3일 전에 모든 수업계획서가 입력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이하 사과대) 학생회는 주간 소속 학생이 주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수강정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진성(사회과학 3) 사과대 학생회장은 “법·정책트랙과 공공행정트랙은 3학년 전공 수업 수강정원이 적어, 일부 주간 소속 학생이 야간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개선을 바랐다. 이에 김현미(학사지원팀) 팀장은 “주간 학생 1~3명가량이 야간 수업을 듣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면신청을 통해 주간 소속 학생은 주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당 트랙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사과대 학생회는 기업·경제분석트랙의 전임교원과 전공 수업 부족 문제 또한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했다. 박 회장은 “해당 트랙은 전임교원의 수가 적어 지도교수를 택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고, 전공 수업 또한 부족함에 따라 학생들이 학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임교원과 전공 수업 분반의 확충과 더불어, 계절학기에 해당 트랙의 전공필수 과목을 개설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하 처장은 “교원 총원 역시 현재 학생들의 수요와 사회 수요를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며 “해당 트랙과의 의견 조율을 거치겠다”고 전했다. 이어 “주기적으로 계절학기 개설 과목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최종 설감 여부는 교·강사 재량기에 수요조사 결과와 실제 개설 여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경제분석트랙과 경제금융투자트랙에 ▲계량경제학 ▲조세경제학 ▲중국경제학, 그리고 수학 및 경제사 관련 강의를 추가로 개설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하 처장은 “해당 트랙에 그 교과목을 담당할 교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교원 추가 채용이나 교육과정 재고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블렌디드 수업의 ‘녹화 강의 재활용’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관련해 하 처장은 “강의 재활용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내부 규정은 마련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창의융합대학(이하 창의대) 학생회는 문학문화콘텐츠학과 야간 학생이 주간 수업을

교차 수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희정(ICT 3) 창의대 학생회장은 “야간 학생의 주간 수업 수강이 불가한 상황에서, ‘스토리텔링의 세계’와 ‘디지털콘텐츠 제작 툴의 이해’ 등 일부 수업의 시간이 겹쳐 학생들이 전공 수업을 듣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하 처장은 “해당 학과에서 추가 분반 개설을 통해 수강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답했다.

총학생회는 미래플러스대학(이하 미플대)의 수강신청 및 수업 관련 개선사항도 건의했다. 교양 수업 확충, 전공 수업 분반 증설 등이 요구됐다. 이상우(미래플러스대학 교학팀) 팀장은 “타 단과대학에서 개설되는 교양필수 수업을 미플대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교무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온라인으로 수강신청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수강 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개별적 연락을 취하는 등 최대한 수강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플대 학생에 한해 수강신청 시간을 조율해 달라는 안건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하 처장은 “작년 2학기 수강신청 당시 동일한 민원이 제기돼 수강신청 시간을 연장했었으나, 연장하지 않았을 때와 유사한 시간에 학생들의 수강신청이 전반적으로 종료됐기 때문에 이번 학기 수강신청이 기존대로 회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플대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의 질적 향상이 요청되기도 했다. 오주림(인문 3) 부총학생회장은 “미플대의 특성상 온라인 수업이 다수인데, 온라인 강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됐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 팀장은 “미플대는 외부 전문가의 온라인 수업 모니터링·컨설팅을 단과대학 설립 시부터 꾸준히 받아 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강의 제작 단계부터 업로드 이후까지의 전 과정에 자체 모니터링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사과대 학생회는 제2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장구를 늘려달라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국제교류지원팀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튜터링’ 프로그램 신청 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본어, 중국어 등 제2외국어 회화 수업의 확충과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 처장은 “모든 제2외국어 교양 수업을 개설할 수는 없으나, 수업의 추가 개설과 비교과 프로그램 신설 모두 논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의대 학생회는 일부 영어커뮤니케이션 고급반의 수업 수준이 다른 단계의 수업 수준과 유사하다는 민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교재 변경과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으로의 전환을 요청했다. 하 처장은 “수업의 형식은 교과목의 성격과 교·강사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상상력교양대학 교양영어과정에서는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이 장려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생활 및 복지 부문 안건

- 오촌·삼선학사 시설 개선 요청
- 교내 취식시설 관련 논의
- 학복위·총무처, 금연구역 흡연 제도
- 냉난방 중앙제어 해제 요구
- 와이파이 속도 관련 문의
-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 속도 개선
- 출결 관련 어플 통합 검토
- 공간 부족 관련 전방위적 점검 예고
- 남학생 휴게실 설치 요청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에서는 우촌학사와 삼선학사 A동의 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상상빌리지(이하 상빌)와 시설 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홍승린 학생처장은 “두 기숙사가 상빌에 비해 노후된 것은 사실이기예 예산을 들여 지속적으로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공간 협소 및 노후 등의 문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학복위는 교내 취식시설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총무처에 전달하기도 했다. 주말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취식시설 주말 운영과 휴지 등의 학생식당 내 물품 관리 체계화를 제시했다. 장영우 총무처장은 “상상관 12층의 ‘케이키친 한상’과 ‘팔고당’이 주말에도 운영 중”이라며 “주말 취식시설 수요 모니터링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벌어지는 흡연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장 처장은 “홍보나 계도는 지속하겠지만, 본교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단속권을 갖지는 않는다”며 “학복위도 계도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학복위는 교내 시설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종이, 플라스틱 등

을 분류할 수 있도록 재활용 쓰레기통을 확충하고, 냉난방 중앙제어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처장은 “대학본부 차원에서 ‘그린 캠퍼스’의 일환으로, 올해 예산에 쓰레기통 구입 비용을 반영해 순차적으로 구입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앙제어는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총학생회에서는 와이파이와 종합정보시스템의 접속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김성길(정보화팀) 팀장은 “개강을 맞이하며 트래픽이 과중됐고, 불편을 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전했다. 또한 “종합정보시스템 속도와 관련해서는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의 접속 속도 저하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사항도 존재했다. 이에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을 담당하는 나지영(학생성공센터) 부팀장은 “통합 관리 시스템이다 보니 많은 데이터가 들어 있어 속도가 저하되는 부분이 있다”며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총학생회는 또한 ‘한성대학교 전자출결 시스템’과 ‘한성대학교 모바일ID’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대학본부에 전달했다. 김현미 팀장은 이에 대해 “편의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제안”이라면 “서버 과부하나 기능 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방이 없는 동아리가 있다며, 공간을 확충해 달라고 언급했다. 창의대 학생회 또한 문학문화콘텐츠학과와 SI응용학과의 학생회실이 부재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설 부족에 관한 민원이 지속되자 이창원 총장은 “교무처·학생처·총무처가 주도해 공간을 어떻게 배정하면 좋을지에 대한 원칙을 이번 학기 안으로 만들고, 본교내 모든 공간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해 2학기에는 공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총학생회에서 공간 문제를 점검하며 ‘남학생 휴게실’ 설치 또한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상욱(학생장학팀) 팀장은 “여학생 휴게실은 생리 기간에 학교에 오야 하는 여학생을 위한 배려”라며 “남학생이 이용 가능한 휴게실은 상상관 7층 휴게실 등지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정성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 2023학년도 후기 한성대학교 대학원 신입생·편입생 모집

# 한성에 간다는 건 한발 앞서 간다는 것

세상이 원하는 전문가로 미래를 선도할 지식인으로-  
당신의 가능성이 성취로 이어지도록  
한성대학교 대학원이 함께합니다.

| 일반대학원(주간) |       |                                      |                                      |
|-----------|-------|--------------------------------------|--------------------------------------|
| 대학원       | 학위구분  | 모집계열                                 | 모집학과                                 |
| 일반대학원     | 박사    | 인문계                                  | 한국어교육학과                              |
|           |       |                                      | 사학과                                  |
|           |       |                                      | 문화정보학과<br>문화콘텐츠학과                    |
|           |       | 사회계                                  | 경영학과                                 |
|           |       |                                      | 행정학과<br>무역학과                         |
|           |       |                                      | 경제·부동산학과<br>산업경영공학과                  |
|           | 석사    | 공학계                                  | 정보컴퓨터공학과                             |
|           |       |                                      | 기계시스템공학과<br>미디어디자인학과                 |
|           |       |                                      |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
|           |       | 예·체능계                                | 한국어교육학과                              |
|           |       |                                      | 사학과                                  |
|           |       |                                      | 영어영문학과*<br>문화정보학과<br>문화콘텐츠학과<br>무역학과 |
| 석사        | 인문계   | 사학과                                  |                                      |
|           |       | 영어영문학과*<br>문화정보학과<br>문화콘텐츠학과<br>무역학과 |                                      |
|           |       | 경영학과<br>행정학과                         |                                      |
|           | 사회계   | 경제학과                                 |                                      |
|           |       | 국제이주협력학과<br>산업경영공학과                  |                                      |
|           |       | 컴퓨터공학과<br>전자정보공학과<br>IT융합공학과         |                                      |
| 석사        | 공학계   | 기계시스템공학과                             |                                      |
|           |       | 시스템융합학과<br>융합보안학과                    |                                      |
|           |       | 회화과<br>무용학과                          |                                      |
|           | 예·체능계 | 미디어디자인학과                             |                                      |
|           |       | 한국어교육학과                              |                                      |
|           |       |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학과                         |                                      |

| 특수대학원(야간)      |      |       |   |
|----------------|------|-------|---|
| 대학원            | 학위구분 | 모집계열  | 모집학과  |
| 경영대학원          | 석사   | 사회계   | 경영학과  |
|                |      |       |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
|                |      |       | 글로벌경영학과   |
| 행정대학원          | 석사   | 사회계   | 사회복지학과  |
|                |      |       | 사회안전학과  |
| 예술대학원          | 석사   | 예·체능계 | 뷰티예술학과  |
|                |      |       | 뷰티산업융합학과  |
| 지식서비스 & 컨설팅대학원 | 석사   | 사회계   |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
|                |      |       | 미래융합컨설팅학과   |
| 부동산대학원         | 석사   | 사회계   | 부동산금융·자산관리전공, 부동산도시개발·관리전공, 글로벌부동산전공, 스마트부동산·프롬테크전공 |
|                |      |       | 교육대학원   |

\* 정원외 외국인특별전형은 모집하지 않음

**| 원서접수 및 발표 |**

- 원서 접수 기간 : 2023. 4. 24.(월) 10:00 ~ 5. 5.(금) 17:00
- 접수 방법 : [대학원홈페이지-입학안내-모집요강]에서 모집요강 확인 후  
유웨이어플리케이션(http://www.uwayapply.com)을 통해 인터넷접수
- 면접 고사 : 2023. 5. 20.(토) 10:00 학과(전공) 지원인원에 따라 면접고사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2023. 6. 1.(목) 오후 대학원홈페이지 참고
- 전화문의 : (02) 760-4271(대학원 교학팀)
- 홈페이지 : http://gs.hansung.ac.kr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참고 또는 전화문의 바랍니다.

**한성대학교 대학원**  
(02876)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상상관 1002호)

\* 신설 또는 명칭 변경 학과 및 전공임.

# 모두의 화장실, 지나쳤던 일상의 권리를 찾아



사진 제공 : 모두를 위한 모장실 문화 만들기 모임 '모모'

대학가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하 모두의 화장실)'의 설치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모두의 화장실이란 어떠한 신체나 사회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다.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하나의 화장실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모두의 화장실을 보유한 성공회대학교는 지난 3월 설치 1주년을 맞이했다. KAIST의 경우 지난해 12월 모두의 화장실 설치를 완료했으며, 최근에는 서울대학교가 모두의 화장실 도입을 검토했다.

성별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두의 화장실은 남녀 공용화장실과 같아 보이지만, 설립 목적이 엄연히 다르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남녀 공용 화장실은 여유 공간이 없어 좁은 공간에 남녀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화장실 자체가 중요성이 떨어지는 공간이라는 인식에서다. 반면 모두의 화장실은 공간도 여유로운데다, 설계 과정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다. 성소수자를 넘어 장애인, 노약자 및 영유아와 그들의 보호자 등이 불편함 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박경태(성공회대학교 사회학전공) 교수는 "모두의 화장실은 공간의 문제를 떠나 모든 사람의 화장실 사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모두의 화장실에는 정해진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보통 가정집 화장실처럼 화장실 한 칸에 불빛과 관련된 용품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끔 설계돼 있다. 여기에 휠체어 사용자가 원활히 이동할 수 있는 출입문과 공간을 갖추고, 대소변기와 세면대를 비롯한 샤워기 등을 구비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기저귀 교환대부터 유아용 변기,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지지대 등을 갖춘다면 모두의 화장실로서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평가된다. 김지학(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은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여러 요소를 고려해 설계된다면 그것이 바로 모두의 화장실"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2017년 서울특별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내 공공시설에 모두의 화장실 시범 설치를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무산된 바 있다. 모두의 화장실과 관련된 논의와 설치가 활발한 해외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에 자리 잡은 성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가 모두의 화장실 관련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오정진(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성별을 구분하며 살고 있다. 화장실이라는 내밀한 영역이 아무 구분 없이 다른 성별에 노출되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모두의 화장실을 통해 화장실 사용이라는 기본적인 권리가 모두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화

장실을 원활히 이용하지 못한다면 일상생활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화장실이라는 기본적인 권리가 사라지면 건강권, 교육권 등을 침해받는다. 모두의 화장실 논의는 화장실 사용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할지, 배제할지의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10월을 기준으로 지난 12개월간 성별이 분리된 공중화장실에서 '부당한 대우나 불쾌한 시선을 받을까봐 내 성별 정체성과 다른 성별의 시설을 이용했음'이라고 답한 트랜스젠더는 40.9%였으며, '화장실에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지 않았음'이라고 답한 이들은 39.2%였다. 심지어는 화장실 이용을 포기(36.0%)하거나 제지(12.2%)당하기도 했다. 성전환술 여부와 상관없이 출생 시의 생물학적 성별과 스스로 정체화한 성 정체성이 다른 트랜스젠더 등의 성소수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실제로 성소수자들은 외부에서 대소변을 해결하지 못해 방광염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모두의 화장실은 성소수자뿐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원의 화장실 사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어린 딸과 아버지, 노모와 아들, 장애인 여성을 돌보는 남성 활동지원사 등은 어떤 화장실로 향해야 할까. 박 교수는 "성 정체성을 넘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기에 성중립 화장실 대신 모두의 화장실로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모두의 화장실 설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제도적 부재라고 입을 모은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의 공중화장실등은 대학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의 화장실을 포함한다. 남녀를 분리하지 않는 모두의 화장실이 해당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표혜령(화장실문화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해당 조항이 생긴 이후 지어진 건물은 적용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 교수는 "모든 시민을 위해 남녀를 구분한 화장실이 아닌 모두의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두의 화장실 설치를 위해 필요한 공간과 비용이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휠체어 사용자 등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에 넓은 공간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화장실의 절대적인 칸 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모두의 화장실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시설물이 필요하기에 비교적 더 많

은 비용이 든다는 점도 언급된다. 오 교수는 "모두의 화장실은 한 칸마다 필요한 설비를 갖춰야 해서 많은 공간과 경비가 필요하다. 성별을 분리할 때보다 절대적인 칸수는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모두의 화장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구성원의 권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공간과 비용에 더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화장실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을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있는 건물의 장애인 화장실을 개조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김 소장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을 개조해 모두의 화장실로 만든다면 비용은 줄고, 활용성은 높일 수 있다"고 술회했다.

남녀가 같이 사용하는 만큼 성범죄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이 큰 문제 중 하나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두려움의 근거로는 2016년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발생한 '서초동 주점 화장실 살인사건'이 꼽힌다. 표 상임대표는 "남녀가 공용으로 이용하기에 사용자가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다. 성범죄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우려는 비단 모두의 화장실 문제라고만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는 이들도 상당수다. 성범죄가 발생하는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박 교수는 "화장실 성별 구분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막지 못한 사회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모두의 화장실 사용이 오히려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오 교수는 "낙인은 모두의 화장실을 성소수자만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발생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낙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설치 장소가 중요할 것이라 예측했다. 후미진 공간이 아닌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돼야만 궁극적으로 모두가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후미진 곳에 설치돼 성소수자만 찾아가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그것이 낙인이다. 일상적인 공간부터 변화된다면 낙인 없는 화장실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무엇보다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관련 논의가 이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강제 설치의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공청회와 공개토론회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인권 보장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모두의 화장실은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폭력에 노출시키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기자 kimjihun30@gmail.com

## 정기자와 나누는 정치 수다

## 국민 뜻 '제대로' 반영하려는 노력

선거 유세기간에 창문을 열면 유독 많은 소리가 들린다. 많은 후보가 자신을 뽐내달라고 열심히 '유세 전쟁'을 벌이는 소리다. 그러나 전쟁은 선거 전부터 벌어지는 '선거제 개편 논의'부터 시작된다. 각 국회의원과 정당은 각자가 판단하기에 '민의를 효과적으로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선거제를 도입할 것을 호소한다. 2024년 4월에 진행될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도 '난상토론'이 벌어졌으니, 그곳은 바로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다.

국회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중요한 의안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위해 전원위를 구성할 수 있다. 이때 전원위의 구성원은 말 그대로 국회의원 전원이다. 1948년 『국회법』 제정 당시 법률에 명시됐던 전원위는 1960년 삭제됐다가, 2000년에 재도입됐다. 국회의원이 의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소신을 갖지 않으며, 그저 당론에 따라 찬반 표결만 내린다는 비판에서다.

이번 전원위에는 ▲노동조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무엇보다 쟁점이 된 부분은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였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정치 진영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소선거구제란, 한 지역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유권자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꼽히지만, 1위 득표자를 뽑지 않은 나머지 표들은 전부 사표(死票), 즉 '죽은 표'가 된다는 점에서 비례성이 떨어진다. 정당이 얻은 표의 수와 그 정당이 가져가는 의석수 간에 차이가 클 수 있다는 말이다.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중대선거구제는 2등 이하 득표자를 뽑은 표도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표의 등가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지역구에서 2명을 선출한다고 했을 때, 50%의 득표율로 당선된 1등 후보와 30%의 득표율로 당선된 2등 후보가 의회에서 같은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의원을 선출할 때에는 소선거구제를

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 일각에서 내놓는 주장과 달리, 중대선거구제가 양당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중선거구제로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시·군·구의회의 사례를 통해, 중대선거구제가 양당제 타파나 소수당의 의회 진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에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군·구의회의원 선거 결과,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역구 의석수의 93.6%를 차지했다.

또한 선거구의 크기만 놓고 토론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떠한 방식을 거쳐 유권자의 표를 의석으로 전환할지, 즉 의석 배분 방식이 선거구의 크기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을 선출할 때는 '단순다수대표제'를 따른다. 이는 1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을 말한다. 김형철(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 교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더라도 지금처럼 1표라도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 하에서는 높은 수준의 비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선거제 개편의 본래 목적인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300석 중 47석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수가 늘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가 배분되기에,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회에서 차지하는 의석수의 비율이 유사하다. 유성진(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교수는 "우리 선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정당 득표율과 의석율 간의 왜곡이라고 파악한다면 비례대표제가 가장 적합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위에서의 논의가 더욱 심층적이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선거제 개편 자체에 대한 회의론을 표출하기도 한다. 정당 혹은 지역구별로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선거제의 이해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조원빈(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민단체나 학자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기구에서 선거제를 제안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정성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요즘 애들은 왜 그래?” 어느 세대나 그랬듯, 현 젊은 층도 자주 듣는 물음이다. 진짜 요즘 애들은 왜 그럴까? 그래서 알아봤다.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만 보면 사족을 못 쓰고 달려드는 기자가 그 속으로 뛰어 들었다. MZ세대의 대표주자인 기자를 따라 청년이 열광하는 것을 파헤쳐보자. 보존하고 지켜야 하는 인식이 강하던 우리의 전통이 최근 청년들에게 ‘할매니얼’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다가오고 있다. 특히나 그 흐름은 전통 먹거리에서 강한 기세를 띤다. 다양성은 어느 술에도 견줄 수 없는 전통주부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쫄하다는 일명 ‘겉바속쫄’으로 이름을 날린 약과, 그리고 이름부터 생소한 ‘개성주’ 까지. 그 유행의 물결을 해명한다.

박희진 기자 furi1120@naver.com

# 돌고 돌아 다시 ‘K-음식’이다

## 할매니얼, 고농 참 ‘합스럽구나

최근 젊은 층에게 전통문화가 새롭게 다가오고 있다.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감각에 맞춰 변주되고 있는 것이다. 변화는 전통문화를 우리만의 멋진 것, 일명 ‘K-힙’이라는 명칭까지 만들어 냈다. 200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만연하던 문화 세대주의 분위기가 사라지며, 우리 고유의 전통을 더욱 멋있는 것으로 느끼고 알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추세다. 김시범(국립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져 전통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청년층 사이에서의 K-힙은 ‘할매니얼’ 트렌드에서 출발한다. 할매니얼이란 ‘할머니’와 ‘밀레니얼’이 합쳐진 신조어로, 할머니들이 먹고 입을 법한 음식과 패션 취향을 가진 젊은 세대를 뜻한다. MZ세대에게 할매니얼 트렌드는 전통문화가 기존의 대중적인 콘텐츠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오게끔 만들었다. 쏟아지는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할머니의 취향과 스타일이 하나의 개성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김 교수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한 현 청년층에게 K-힙은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청년들이 과거를 재해석해 소비하기에 익숙한 것이 할매니얼 트렌드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현재의 젊은 층은 이미 한 차례 새로움(new)과 복고(retro)가 합쳐져 만들어진 ‘뉴트로’ 열풍을 경험한 바 있다. 이에 떠오르는 할매니얼 트렌드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명옥(연세대학교 미식문화 최고위과정) 교육원은 “뉴트로와 마찬가지로 할매니얼 트렌드도 익숙하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영역”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과거보다 청년 세대와 조부모 세대의 교류가 증가했다는 점도 할매니얼 트렌드의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과거보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조부모와 함께한 시간이 많아지면서 옛 취향과 스타일을 받아들이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MZ세대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교류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났다. 따라서 일부 젊은 층은 부모보다 조부모와 더 깊게 교류한다. 결국 어르신들의 취향인 음식과 옷 등이 젊은 세대에겐 편하고 익숙하게 다가오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전했다.

## 애주가들은 전통주로 집합하라

언제까지 소주와 맥주만을 마실 것인가. 더 이상은 마를 수 없다. 이제는 전통주에 빠질 시간이다. 총무로에서 200여 종의 다양한 전통주를 판매하는 전통주 전문 판매점 ‘술술상점’을 찾았다. 술술상점은 ‘중구청년공동창업사업’에 선정돼 문을 열게 된 곳이다. 청년 점장과 함께하는 술술상점은 SNS를 통해 찾아오는 젊은 층의 ‘전통주 아지트’였다. 매장에서는 다양한 전통주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추천해줘 자신의 취향과 가까운 전통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탁주부터 증류주 등까지 전통주가 가진 다양성은 MZ세대 각자만의 개성을 드러내기엔 부족함이 없다. 최효진(술술상점) 점장은 “젊은 층에는 ‘가성비’ 있고 취향에 맞는 술을 권하는 편”이라며 “전통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달콤한 막걸리를 위주로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전통주가 인기를 끄는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통주를 ‘옛날 술’이라고 바라보던 기존의 인식이 점차 사라지고, ‘트렌디한 술’이라는 이미지가 확산됐다고 분석한다. 전통적인 제조법만을 따라가지 않고 각자만의 특별함을 추구하면서 나타난 변화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최근의 전통주 시장은 이끄는 신규 창업자들은 명절에 마시는 이미지가 강하던 전통주를 소주와 맥주처럼 일상적인 술로 여기게끔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명 교육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회식이 사라지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술을 즐기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전통주도 마니아층이 형성돼 전문성을 찾아 전통주 판매점을 찾는 사람이 증가한 것”이라고술회했다.

## 이 정도 인기는 아직 약과지

할매니얼 트렌드의 대표 전통음식은 무엇일까. 바로 ‘약과’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큰 주목을 끈 약과를 얻기 위해 온라인으로 구매를 시도했다. 약과 마케팅, 일명 ‘약케팅’을 도전한 것이다. 결과는 실패였다. 일주일 동안 몰두한 도전을 실패하니 오기가 생겨 먹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다. 약케팅을 통해 ‘남이 구하기 어려운 것을 얻어낸다’는 희소성과 더불어, 시도 자체에서 오는 짜릿함을 느꼈다. 청년들 사이에서 약과 사랑이 뜨거운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김 교수는 “청년층은 약과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성공 여부를 떠나, 직접 해보는 경험적 소비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맛있다는 약과를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어렵사리 학교 근처에서 중고 거래를 통해 구했다. 검사점사 SNS에서 품질 대란이었던 모 기업의 ‘별꿀 약과’도 함께 구매했다. 별꿀 약과와 어렵게 구한 유명 약과, 그리고 유명 약과 가게에서 부서진 약과를 모아 파는 파지 약과 세 종류를 모두 모아 먹어보니, 확실히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주신 것과 차이가 있었다. 본디 약과는 부드럽게 씹히며 많이 달지 않은 간식이었다. 그러나 별꿀 약과는

◀별꿀 약과와 유명 약과 및 파지 약과



▲‘술술상점’ 매장 앞에서 탁주 ‘호호’를 든 기자

달콤하고 페이스트리 같은 식감을 가졌고, 유명 약과 가게의 약과와 파지 약과는 겉이 바삭하고 속은 쫄쫄한 식감이었다. 약과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었는데, 맛있는 약과를 접하니 호감이 생긴다. 청년들은 전통음식의 익숙함에 더해 정말 ‘맛있어서’ 열광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약과’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중 하나인 ‘아이스크림에 약과 올려 먹기’를 시도해 봤다. 최근 약과와 더불어 많은 전통 디저트를 그 자체만 먹지 않고 다양한 레시피로 활용해 먹는 것이 인기를 끌고 있다. 확실히 아이스크림을 곁들인 약과는 그냥 먹는 것보다 입안의 텁텁함을 덜어줬다. 달콤 시원한 것이 은근히 별미였다. 이제는 전통 디저트의 레시피가 다양성을 찾아나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단지 전통을 보존하기보다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향한다고 할 수 있겠다. 명 교육원은 “MZ세대는 옛날 것을 옛날식으로 즐겨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없다 보니 새로운 시도에 거침이 없다”며 “이러한 도전이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겨나 문화 산업도 함께 발전한다”고 말했다.

## 주악 주악 쫄쫄한 개성주악

개성 지역에서 정월 초에 해 먹었다는 떡인 개성주악은 최근 청년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약과의 뒤를 이어받아 전통 음식의 유행 가도를 달리는 것이다. 개성주악은 우리나라에서 유독 다양하게 인기를 끄는 도넛의 유행과도 맞물리는 듯하다. 그 맛이 마치 한국도의 도넛과 같다고 하니, 도넛에 대한 관심이 개성주악으로까지 뻗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개성주악도 역시 MZ세대는 절대 그 자체만을 즐기지 않는다. 도넛 위에 다양한 토핑을 올리는 것처럼, 개성주악도 그 외관이 나날이 화려해지고 있다. 개성주악의 변모는 보기에도 더 먹음직스럽고 오리지널 개성주악에서는 느낄 수 없던 또 다른 맛을 경험시킨다.

다양한 토핑이 올라가 예쁘고 맛있기로 유명한, 저녁쯤엔 모두 팔려 못 사 먹는다는 개성주악을 구하려 압구정으로 향했다. 그곳엔 아무것도 올라가지 않은 오리지널 개성주악부터 과일이나 초콜릿이 한껏 올라간 개성주악까지 다양한 종류가 준비돼 있었다. 끌리는 토핑대로 골라 사와 먹어보니 뇌리에 한 마디가 스쳤다. ‘이게 K-도넛?!’, 그렇다. 먹어보지 않았지만, 먹어본 듯한 찹쌀도넛 같은 맛을 가진 녀석이었다.

청년들은 왜 개성주악에 환장할까. 분명 전통음식 사이에서 부는 고급 이미지의 확산이 한몫했을 테다. 과거 명절에 나눠 먹는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던 전통 디저트, 이제는 소량으로 즐기는 고급 간식이 됐다.



▲유명 파지 약과를 전자레인지에 돌린다.

이는 SNS를 통해 개성주악의 맛을 넘어 만드는 과정까지도 익숙해진 청년들이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고스러움을 인식하면서 나타난 변화다. 명 교육원은 “과정을 알고 보니 매우 고급스러운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 안에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한다”며 “전통이라는 것의 가치 소비를 즐기는 소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래서 직접 만들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만들어보고, 그 과정을 경험해 봐야만, 개성주악을 위한 소비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찹쌀가루부터 조청까지 재료를 구매해 직접 해 먹어봤다. 증청을 만들고 반죽을 굴렸다. 레시피대로 물을 부었는데, 아라? 반죽이 뭉쳐지지 않았다. 30분 넘게 애를 쓰다 겨우 굴린 반죽을 동그랗게 말고 구멍을 뚫어 기름에 튀겼다. 만들어 놓았던 증청에 굴리고 토핑까지 올리니 그럴싸한 모양새가 완성됐다. 완성하고 먹어보니 사 먹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맛이 생각보다 싱거웠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싶어 레시피를 다시 뒤졌다. 아뵐사, 튀긴 반죽을 증청에 일정 시간 담가둬야 했다. 또, 반죽에 넣었던 계핏가루는 증청에 넣는 용도였다. 소중한 2시간과 비용이 이렇게 날아가 버렸다. ‘사 먹고 말지’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직접 만들어보니 개성주악을 판매하는 상점이 하나, 둘 늘어나는 추세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익반죽’이 어색했던 탓이었을지, 아니면 요리 자체가 어색했던 탓이었을지는 몰라도 생각보다 까다롭고 힘든 작업이었다. 종종 해 먹던 전자레인지로 만들어 먹는 간단한 초콜릿 맛의 빵은 비교조차 되지 못했다. 분명히 기자가 느낀 과정의 수고스러움을 경험해본 청년들이 존재할 것이다. 만들어보면 느낄 수 있다. 전문점에서 나오는 노하우와 장비에서 나오는 맛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임을 말이다. 김 교수는 “체험은 그 가치를 인정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며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추세도 일종의 체험 층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언했다.

결가지로 경험해본 우리의 전통 먹거리는 청년층에게 익숙함에서 비롯된 즐거움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처음 들어봐도 어딘가 낯익은 전통음식이 가진 그 매력에 풍당 빠질 수밖에 없다. 다양한 전통음식을 더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는 청년들의 행보는 계속될 전망이다. 명 교육원은 “지금은 시기에 불과할 뿐 전통 차와 전통 디저트와 같은 시장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며 “청년층이 기성세대의 가치와 고정관념을 깨 자유로운 시각과 생각을 갖고서 전통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선한 영향력은 분명하다”고 역설했다.

\*익반죽 : 곡물의 가루를 뜨거운 물로 반죽하는 것



▲기자가 개성주악 반죽을 하고 있다.



▲반죽을 계량해 동그랗게 굴린 후 구멍을 뚫는다.



▲동그란 반죽을 기름에 튀겼다.



▲튀긴 반죽을 증청에 굴리는 중이다.

#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즐거운 스포츠를 선사하다

## 위밋업스포츠 신혜미 공동대표

〈편집자주〉

“운동 좀 해라.” 나이를 불문하고 평생 듣는 말이 아닐까. 특히나 20대에 운동은 마치 하나의 필수 활동으로 여겨진다. ‘20대 때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과 비슷한 제목으로 업로드되는 온라인상의 영상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운동’은 빠짐없이 등장한다.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는 운동, 왜 해야 할까.

운동경기를 일컫는 ‘스포츠’는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안겨다 준다. 기본적으로는 신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바로 팀과 하나 되는 경험을 선사해 ‘연대’해볼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스포츠 경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경기장을 누비며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스포츠에서 느낀 ‘같이의 가치’는 다양한 사람과 어울리는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있어 큰 자산으로 작용한다.

여기, 특히나 여성이 다양한 스포츠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위밋업스포츠’의 신혜미(45) 공동대표다. 축구 선수 시절 경험한 스포츠를 다른 여성들도 즐길 수 있도록 매진한다. 은퇴 여성 선수에게는 일자리를, 아마추어 여성에게는 스포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궁극적으로 여성 스포츠의 활성화를 꿈꾼다. 한번 해보고, 즐기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다고 말하는 그는 어떤 사람일까. 그가 원하는 ‘운동장’을 알아보자.

김기현 기자 kimjihun30@gmail.com



사진 제공 : 위밋업스포츠

‘위밋업스포츠’는 여성에게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위밋업(WEMEETUP)’이라는 사명도 ‘우리(WE) 만나서(MEET UP) 스포츠를 하자’는 의미로 작명됐다.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하고 선수 출신 여성 강사에게 스포츠 클래스를 듣는 방식이다. 위밋업스포츠에서 들을 수 있는 클래스는 우리에게 익숙한 요가, 필라테스, 헬스가 아니다. 주짓수로 문을 연 스포츠 클래스는 농구, 배구, 축구 같은 인기 스포츠를 넘어 럭비, 패들보드, 프리다이빙 등의 수업을 제공한다. ‘스포츠를 즐긴다’는 위밋업스포츠의 철학을 클래스에 담아낸 것이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초보자가 수강하는 경우가 다수이기에 ‘처음이니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수업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자신감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위밋업스포츠는 여성을 위해 다양하면서도 긍정적인 스포츠의 경험을 주고자 만들어졌어요. 일반적으로 여성과 스포츠를 함께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스포츠를 배제하고, 다소 생소한 스포츠 클래스들을 개설했죠. 편견을 없애고 싶었으니까요. ‘스포츠는 즐기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위밋업스포츠가 강조하는 가치예요. 경험해보고 즐거움을 얻었다면 돼요. 운동을 업으로 삼을 것도 아닌데, 꼭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왜 사업의 대상이 ‘여성’일까. 신 대표는 여성 선수들이 은퇴 후 겪는 어려움을 목도했다. 여성 선수들이 은퇴 이후 일할 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지도자로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는 현실에 부딪히는 모습을 바라봐 왔던 것이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여성 선수들이 지도자로 일할 수 있는 위밋업스포츠를 창업했다.

“우리나라를 스포츠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다양한 종목에 많은 스포츠 선수가 있죠. 그 선수들은 언젠가 은퇴해요. 그런데 ‘그 많은 은퇴 선수는 어디로 갔을까?’, 특히 ‘여성 선수들은 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은 계속됐어요. 위밋업스포츠를 함께 창업해낸 사람들끼리 공유했던 의구심이죠.”

스포츠 선수의 은퇴한 삶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은 그도 국가대표를 꿈꿨던 축구 선수였기 때문이다. 신 대표는 어린 시절부터 체력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뛰어놀기를 좋아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새로 창단된 여자축구팀에 들어가면서 ‘여자축구 1세대’로 본격적인 운동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여자축구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발탁된 적도 있다.

“중학교 3학년년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4년간 팀의 주장을 맡았어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우물 안의 개구리였지만, 당시에는 팀 내에서 에이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만족을 느끼고, 누구나 그렇듯 ‘국가대표가 돼야지’라는 꿈을 품고 개인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던 시간이예요.”

그러던 그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10여 년간의 선수 생활을 접었다. 은퇴 결정은 선수 생활 지속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했다. 당시 그가 입단할 수 있는 실업팀은 단 2곳뿐이었고, 입단한다 하더라도 선수 생활을 오래 할 수 없으리라 판단했다는 것이 그의 전언이다. 다른 선수들이 선수로서 더 나은 능력을 지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력이 좋은 선배들도 서른을 넘기면 은퇴하는 현실도 그의 결정에 한몫했다.

선수를 그만두며, 새로운 진로 선택을 위해 그는 대학원에 진학했다. 경희대학교에서 스포츠레저학 석사 학위를 받고, 결혼 이후의 상해체육대학교 유학을 통해서 스포츠인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결혼과 출산으로 일이 중단되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혀 유학을 결정했다. 이후,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서는 스포츠 지도자 활동을 시작했다. 지도자가 되겠다는 목표로 공부를 지속한 것은 아니었지만,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일단 시작했다고 그는 이야기한다.

“일할 기회가 부족했어요. 박사 학위 소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자리든, 그 자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국 선수 출신이라는 장점을 살려 지도자 활동을 하게 됐죠. 기존에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스스로에게 부재하다고 여겼어요. 그렇지만 일단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방과후 교사 등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스포츠 지도자로서의 삶을 이어 나가던 도중, 그는 지금의 위밋업스포츠를 설립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 교육을 수강하게 된다. ‘차세대 여성스포츠 인재 육성과정’과 ‘여성스포츠리더 육성과정’이 바로 그것이다. 우연히 후배의 추천으로 수강하게 된 수업으로 신 대표는 바로 ‘스포츠창업교육 프로그램’까지 이수했다. 이 과정에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왔고, 대학 시절 같은 팀에서 선수로도 된 양수안나 공동대표와 함께 창업의 뜻을 모았다. 여성들의 부족한 스포츠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통한 것이다.

“해당 수업을 수강하면서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아이디어들을 비즈니스적으로 모델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배웠고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처음이긴 했지만, 지금 사업의 시발점이 된 유익한 경험이었음은 분명해요.”

사업 모델을 구체화시키면서 여성들에게 제공하고자 초점을 잡은 것은 ‘팀 스포츠의 연대’다. 물론 그가 운동 선수로서 기계적으로 습득한 연대가 아닌 비운동 선수 대상의 즐거운 연대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현 젊은 층의 여성들은 비교적 운동 경험이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있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일반적인 경험은 ‘살을 빼기 위한 헬스장’ 정도에 국한되죠. 팀 스포츠를 경험하는 여성은 여전히 소수라는 이야기에요. 팀 스포츠 경험은 스스로를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서로 연대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죠. 경기를 하면서 내가 잘해서 이길 수도 있고, 내가 못 했지만 나의 팀이 나를 보완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부담 없이 즐기는 운동을 지향하는 위밋업스포츠는 ‘생활 체육’에 주목하며 사업의 포문을 열었다. 법인 설립 이전, ‘언니들 축구대회’를 개최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의 언니들 축구대회는 쉽게 말해 40대 이상 여자축구 대회였다. 은퇴 선수가 자연스럽게 생활 체육의 지도자로 선정돼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스포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이었다. 대회에는 국제심판을 비롯해 다양한 여성 스포츠인이 힘을 보탰다.

“언니들 축구대회에서 60대 여성이 열정적으로 경기하는 모습을 보며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운동 선수였던 제가 놀랄 정도로 열심히 하는 에너지가 저에게까지 전해졌죠. 그때 확신했어요. 이 사업 모델이, 그러니까 생활 체육의 활성화가 은퇴 선수와 일반 여성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겠다고요. 은퇴 선수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뽐낼 수 있음도 자연히 따라왔으니 말이에요.”

이처럼 위밋업스포츠를 통해 신 대표는 다양한 종목의 강사가 다시 일어설 곳을 마련했다. 현재는 다양한 종목의 강사 40여 명과 함께 일하고 있다. 다양한 여성 은퇴 선수의 취업을 도왔다는 부분을 인정받아 2020년에는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지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사업의 공로를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여성들의 스포츠 활동이 많지 않은 시기, 위밋업스포츠를 통해서 많은 여성 선수가 일어설 기회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신 대표가 ‘인권’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에 찾아온 행운일 지도 모른다. 그는 실제로 강사들에게 주기적으로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스포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이어트에 운동이 효과가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저희는 스포츠를 제공하는 데 있어 스포츠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소비자를 상대해요. 그 자체가 즐거우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위밋업스포츠는 여성을 넘어 농민에게도 스포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과거 지방 소재의 장애인축구협회 사무국장으로서 일하면서 많은 농민을 봤고, 그들의 운동 상황에 관심을 가졌었다. 마침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 한 명이 수어 통역사이기도 하다. 신 대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기 ‘수어’라는 농민의 언어를 활용해 제작한 홈트레이닝 영상을 시작으로, 농민을 위한 대안학교에 재능 기부하는 등 농민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지방에 있는 장애인축구협회에서 사무국장으로서 일할 때 남성 농민들은 축구나 다른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러나 여성 농민들은 대부분 응원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많이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은퇴 선수로서 위밋업스포츠의 대표까지.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운동을 즐겁게 경험하는 자세다. 다양한 종목을 즐기고 싶은 여성 청년들에게 망설이지 말고 실천해보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실천 방식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청년은 무엇이든 하기 좋은 나이대예요. 직접 스포츠 관련 동아리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떤 팀이든 팀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겠죠. 여러 스포츠를 한번 정도는 경험해보고, 본인한테 어울리는 스포츠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다양한 활동을 해보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나아가서는 평생 재미있게 해볼 수 있겠다는 활동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언젠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고민하지 말고 무엇이든 해봤으면 좋겠어요. 꼭 운동이 아니어도 말이에요.”



사진 : 박희진 기자

▲지난 31일, 본지와 인터뷰 중인 신혜미



사진 출처 : 여성신문TV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지원상 수상 소감을 밝히는 신혜미

# 4·19는 어떻게 혁명이 되었나

4·19혁명이 올해로 63주년을 맞았다.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민주화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수도 없이 만나볼 수 있지만, '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은 사건은 4·19혁명이 유일하다. 혁명은 헌법을 벗어나 국가의 기초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을 말한다. 1960년 4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자유당은 영구 집권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애썼다. 2번에 걸친 헌법 개정을 통해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통령선거 방식을 바꿨으며, 반정부 인사에 대한 폭력을 자행하기도 했다. 헌법에 기반한 질서를 무시하면서 종신 집권의 길을 닦아 나가는 행위에 그의 정권을 향한 국민의 불만이 커졌다.

1958년, 민의원'을 선출하는 '제4대 국회의원선거(이하 민의원 선거)'에서부터 민심은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을 떠났다. 선거를 앞두고 진보당의 당수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사법살인'을 자행한, '진보당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조봉암은 1956년 제3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이 전 대통령의 유력한 경쟁자였다. 또한 부통령에는 이미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당선된 상태였고,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은 개헌이 가능한 의석수인 154석을 확보해야 그들 마음대로 헌법을 고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러 부정행위를 자행했음에도 자유당은 125석을 얻는 것에 그쳤다. 학자들은 비록 실패했지만 민의원 선거가 정권 붕괴의 가능성을 보여줘,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이 더 큰 부정행위를 기획하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한다. 고지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민의원 선거로 정권 연장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이 전 대통령과 자유당이 3·15부정선거를 도모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1959년, 이 전 대통령은 1년 뒤 진행될 선거에서 자신의 대통령 연임과 자유당 이기붕의 부통령 당선을 위해 구체적인 부정선거 계획을 만들어 나갔다. 가장 먼저 1959년 3월, 자신의 '총복'이라 불리던 최인규를 내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 그러자 최 장관을 필두로 각급 기관의 공무원과 경찰이 선거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공무원은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의 정책에 대해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동원됐으며, 경찰은 6월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된 재보궐선거를 '예행연습' 삼아 선거 과정을 진두지휘하면서 민주당이 주최하는 선거유세나 집회는 허가해주지 않았다. 이에 더해 자유당은 '대한반공청년단'과 같은 관제 단체를 만들고, '정치강패'를 해당 단체의 요직에 임명시켰다. 정치강패란 정치세력에 무력을 제공하며 권력 유지에 도움을 주고 대가로 권력의 보호를 받으며 경제·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무리를 말한다. 이들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이 전 대통령과 자유당에 대한 비판을 억압시켰다.

동시에 이 전 대통령과 자유당은 '4할 사전투표', '3인조·9인조 공개투표'와 같은 구체적인 부정 투표 방법까지 계획했다. 4할 사전투표란 총 유권자의 40%에 해당하는 자유당 표를 투표 개시 이전에 투표함에 넣어두는 방법이며, 3인조·9인조 공개투표는 3인 또는 9인씩 조를 짜서 조장이 자유당 후보에게 모든 조원이 투표했는지 확인한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방식이다.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이 이처럼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계획하고 있는 동안, 자유당에 대항할 만한 유일한 정치세력이었던 민주당은 구파와 신파로 갈라져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었다. 두 계파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항할 후보를 지명하는 문제에서조차 이견을 보였다. 구파는 조병옥을, 신파는 장면을 대통령 후보

로 내세워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각각 주장했다. 결국 민주당은 내용으로 인해 이 전 대통령과 자유당의 부정선거에 대응하는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지 못했고, 11월이 돼서야 조병옥을 대통령 후보에, 장면을 부통령 후보에 지명했다. 고 선임연구원은 "민주당은 애초부터 '반이승만'에 동조한 여러 정치세력이 통합된 연합체의 성격을 띠었다"며 "이승만 정권의 전횡을 참을 수 없던 국민들의 선택을 통해 제1야당으로 부상했음에도 계파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이러한 상황마저 부정선거의 성공에 활용하려 했다. 바로 선거일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선거는 5월에 치러져야 했다. 그러나 12월에 이 전 대통령은 농민기를 피해 조기에 선거를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이 내분을 수습하고 선거전에 나설 준비도 채 하지 못했을 때 선거를 끝내버리기 위함이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1960년 2월, 결국 3월 15일로 선거일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이 선거일을 앞당긴 데에 조병옥 후보의 병세가 연관돼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조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이후 꾸준히 건강이 악화됐으며, 1월에는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떠나기에 이르렀다. 김재원(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겸임교수는 "조 후보는 건강 문제로 인해 선거운동에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이 기회를 틈타 자유당과 이 전 대통령은 썩새게 선거를 마무리하려 꾀수를 부린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선거를 한 달 앞둔 채 사망했고, 민주당은 새로운 대통령 후보도 내놓지 못한 채 선거를 치러야만 했다. 대통령 후보가 이승만 한 사람으로 좁혀졌음에도 자유당은 부정선거 계획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 이기붕 후보의 부통령 당선을 위해서였다.

국민들은 이미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행해질 것임을 알고 있었다. 민주당이 자유당을 통해 공무원과 경찰을 대상으로 배포된 선거대책 비밀 공문을 증거 삼아, 부정선거가 계획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정선거 계획으로 인해 국민들의 이승만 정권에 대한 부정 여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경상북도 대구시에서 '2·28민주운동'이 벌어졌다. 2·28민주운동은 일요일인 2월 28일 대구에서 예정된 민주당의 선거유세에 고교생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등교시킨 일어난 항거였다. 전국 각지로 시위가 전파되면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선거일 이틀 전인 13일까지도 서울특별시와 고교생은 공명선거를 요구하며 산발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이런 민심에도, 정부는 굴하지 않고 부정선거를 강행했다. 사전투표, 공개투표가 이어졌고 경찰과 대한반공청년단이 투표소를 장악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어 개표 결과는 이 전 대통령이 유효투표 수의 88.7%, 이기붕 후보는 79%를 득표한 것으로 발표됐는데, 이는 내무부에 의해 조작된 수치였고 이것을 그대로 믿는 국민은 없었다. 정부에서는 자유당 표가 100%를 넘기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면서 각 지역 개표소에 자유당 표를 줄이라는 '감표' 지시를 하달하기까지 이르렀다.

선거 당일에는 경상남도 마산시에서 '제1차 마산시위'가 벌어졌다. '부정선거 다시 하라', '선거 무효' 등의 구호가 울려 퍼졌고, 경찰의 폭력적 진압 또한 계속됐다. 마산에서 시작된 시위는 전국으로 뻗어 나갔으며, 결국 정부는 등교중지령까지 내렸다.

이미 전국이 분노로 달린



1 민주당 진주시당 당사 앞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농성을 벌이다가 경찰에게 제지당하는 당원  
2 마산의 할머니들이 재선거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3 대학교수단이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가운데, 4월 11일에는 국민의 반발심을 추동할 새로운 사건이 터졌다. 제1차 마산시위 당시 실종됐던 마산상업고등학교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중앙부둑가에 떠오른 것이다. 소식을 접한 마산시민들은 삼시간에 거리를 매었고, 더 많은 시민이 더 격렬하게 저항했다.

마산에서 벌어진 2번의 시위는 '기폭제' 역할을 했는데, 특히 대학생들의 집단적 움직임이 시작됐다. 18일,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가장 먼저 나섰다. 신입생 환영회를 방자해 교내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 밖으로 나가 가두시위를 진행했으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대통령과 내무부 장관의 부정선거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고려대 학생들은 시위를 마치고 학교로 복귀하던 도중, 100여 명의 정치강패들에게 습격을 당했다.

해당 사건은 대서특필됐고, 더 많은 시민과 학생이 움직이기에 충분한 도화선이 됐다. 동국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서울시내 주요 대학의 학생들이 21일에 진행기로 한 집회가 19일로 앞당겨졌다. 국회의사당, 경무대 인근, 대법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오후부터는 고교생까지 참여하며 규모가 점점 커졌다. 시위가 여러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자,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서울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했다. 계엄군은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는 등 무력을 사용해 진압했는데, 그럼에도 시위는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일부 시위대가 무장을 하고 군경에 대항했으며, 친정부 언론사인 서울신문사 사옥과 대한반공청년단이 들어 있는 반공회관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경기도 인천시, 충청남도 대전시 등 전국 각지에서 시위가 전개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를 '일부 불순 분자의 불평' 정도로 생각했다. 20일 그가 발표한 담화에는 '애국적인 한국인으로서 어느 누구든지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었다고 믿지 못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사과나 퇴진의 뜻은 밝히지 않았다. 그저 장관 등 국무위원과 자유당 당무위원 전원의 사퇴로

무마시키려 했다. 하지만 시위는 잦아들지 않았고 이 전 대통령은 자유당 총재직을 내려 놓았으며, 이기붕 부통령 당선지는 당선인 신문에 몰래 실렸다. 표면적으로는 일단락된 모양새였다.

그러나 25일, 대학 교수진까지 시위에 나서며 정국은 다시금 새 국면을 맞았다. 교수들이 19일에 있었던 무수한 학생들의 희생을 지켜보기만 했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다 결국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250여 명에 달하는 각 대학의 교수진은 서울대에 모여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요구'를 담은 시국선언문을 작성했다. 시국선언문이 완성되자마자 교수단은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교수단의 행렬에 학생과 시민들은 말없이 따라 나섰고, '이 대통령은 즉시 물러가라'는 구호가 온 도시를 울렸다. 김 교수는 "교수단의 시국선언문은 처음으로 이 전 대통령의 책임과 퇴진을 거론했다"며 "구호가 '이승만 퇴진'으로 바뀐 것도 이때부터였다"고 설명했다.

이튿날까지 시위가 이어지자, 허정 외무부 장관의 주도로 대통령 하야 논의가 시작됐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하야 성명을 발표한다. 이후 국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즉각 하야, 3·15 선거의 무효화 및 재선거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긴 '시국수습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리고 27일, 이 전 대통령이 사임서를 제출하며 4·19혁명은 막을 내린다.

우리 현대사 속 민주화를 위한 노력들은 주로 대학생이나 고교생과 같은 학생의 손에서 일궈졌다. 4·19혁명 역시 학생의 역할이 컸지만, 도시의 빈민층과 무직자 등의 참여도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다양성을 갖는 혁명으로 평가된다. 또한 최초의 전국단위 민주화 운동으로, 이후 박정희 정부에서 벌어진 저항운동의 기원으로서 한국 현대사에 자리매김했다. 고 선임연구원은 "넉마주이 나 초등학생,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참여했다"며 "4·19혁명은 국민들의 자발적 주권 행사의 출발로서, 민주주의 이행의 서막으로 기억될 수 있다"고 술회했다.

\*민의원 : 1952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구성된 입법부의 하원. 그러나 상원인 '참의원'은 자유당의 방해로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사실상 단원제 의회로 기능했다.

정상혁 기자 normalhyek0927@hansung.ac.kr



사진 : 황서연 기자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삼 학 송 ·

### 아침밥 타령은 이제 그만

여기, 고물가 시대 속 청년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있다. 일명 '천원의 아침밥'이다. 2017년 처음 시행된 천원의 아침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일컬어지는 2023년의 대학가에 또 한 번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사업은 학생이 천원을 지불하고, 정부가 천원을 지원하면, 차액을 대학이 메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보도하는 본 사업의 명칭은 2000년대 초반 한 예능 프로그램의 프로젝트였던 '만원으로 일주일 버티기'를 떠올리게 한다. 요즘 젊은 층의 '무지출 챌린지' 등을 목도하면서도 연상됐던 과거의 기억이다. 언뜻 비슷해 보이는 이들의 실상은 전혀 다르다. 챌린지 형식의 절약 프로젝트는 생활고에 허덕이는 일부 청년의 상황과 결코 비교할 수 없으니 말이다.

천원의 아침밥은 학생의 식비 부담을 덜고 국내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린 정책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의의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 해당 사업에 참여한 28개 대학의 5,437명 재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앞으로도 사업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응답자는 98%를 웃돌았다. 이에 더해, 기존보다 많은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추가 모집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동일한 고물가 시대를 보내는 비대학생 청년은 해당 사업의 수혜에서 배제됐다. 대학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비교적 대학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방 소재 대학 역시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란 쉽지 않다. 정부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차액은 대학이 부담해야 하는데, 재정적 여유가 없는 일부 대학은 이

조차 버거운 실정이다. 무엇보다 참여 대학이 늘었다 하더라도, 현재 전국에서 41개교만이 시행하고 있기에 여전히 미참여 대학이 주류인 상태다.

학생이 저렴하게 끼니를 해결하고자 아침 일찍부터 등교하는 작금의 상황은 꽤나 씁쓸하게 느껴진다. 어떻게든 비용을 아끼며 살아내려는 청년의 절박함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대목이 아닌가. 게다가 현 청년 세대가 버텨내야 할 상황은 치솟는 물가뿐만이 아니다. 단군 이래 역대 최고의 스펙을 가진 자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취업 시장에서 낙방하는 것이 낯설지 않으며, 최저 주거기준을 겨우 넘긴 집을 공급해대는 사회 속에서 그저 삶을 살아내고 있다. 이외에도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등 그들이 견뎌야 하는 삶의 무게는 끝이 없다.

그런데 용산과 여의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젊은이들의 고충을 제대로 알기는 하는지, 너나 할 것 없이 더 많은 아침밥만을 약속하고 나섰다. 청년층이 맞닥뜨린 수많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고안하지 않은 채, 시류에만 편승하고자 혈안인 모습이 마뜩찮다. 그저 내년 예정된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더 큰 지원을 내뱉는 모양새가 아닌가.

천원으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닌, 일자리 걱정, 이사 걱정, 생활비 걱정, 끼니 걱정,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 당연히 이를 위한 사회적 기반이 필요할 테다. 왜 학생들이 이른 아침부터 천원으로 밥을 먹으려 학교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진정으로 고민하고, 또 공감하고, 결국에는 묘안을 찾아내 안정적 사회가 도래할지 염원한다.

한혜정 편집국장



### 기자수첩

지난 3월 28일,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는 한국과 우루과이의 친선경기를 한 시간 가량 앞두고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을 사면하겠다고 기습 발표했다. 축협은 카타르 월드컵 대표팀의 성과를 축하하고, 현 대표팀의 새로운 도전을 통한 축구계의 대통합을 위해 이번 사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축구 팬들의 반발 목소리가 거세지자, 축협은 사후 31일에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를 돌연 철회하고 사죄의 말을 전했다. 이번 사면에는 ▲승부조작 ▲금전 비리 ▲폭행 등의 사유로 징계 중인 선수가 여럿 포함돼 큰 파문이 일었다. 특히 승부조작이란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 감독, 심판 등의 경기 참여자가 일부 플레이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한국 프로 축구 연맹은 승부조작 범위가 점조직으로

### 팬이 없으면 스포츠도 없다

이뤄져 전체적인 규모나 배후 파악이 불가능해서 더욱 악질이라고 이야기한다. 선수들은 한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몇몇 선수의 개인적인 탐욕으로 그들의 노력은 수포가 된다. 해당 경기 '조작된 경기'라고 낙인찍히면 대중은 그 경기를 거들떠보지도 않을뿐더러 비난을 퍼붓는다. 경기장 위에는 죄가 없는 선수들이 더 많겠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리는 격이다. 자연스럽게 경기 자체의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이영표·이동국 등의 축협 부회장을 포함한 축협 이사진은 이번 사면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원 사퇴했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이었지만, 이들은 해당 사면 안전에 있어 크게 반대 의견을 표출하지 않고 침묵했다. 선수 출신도 대거 포함되는 등

후배들을 이끌어야 할 인물들이기에 사퇴 조치도 책임 회피성으로 보일 뿐이다. 황희찬 선수의 결승 골로 승리했던 포르투갈전을 기억하는가. 모두가 우리나라의 패배를 예상했으나 우리 대표팀은 당당하게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에 진출했다. 이처럼 팬이 경기장을 찾는 이유는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열정을, 이에 더한 드라마 같은 승리를 보기 위해서다. 정몽규 축협 회장은 이번 사면을 철회하면서 '공명정대한 그라운드를 바라는 팬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감안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이슈로 이미 다수의 팬은 국내 축구에 등을 돌렸을 테지만, 더 이상은 팬들을 기만하지 않는 투명한 스포츠계가 되길 기대한다.

김우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 낙산에 올라

약 1~2년 전부터 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등 세로 화면으로 제작된 짧은 영상 콘텐츠가 열풍이다. 짧은 시간 내에 핵심적인 부분만 시청할 수 있으니 바쁜 현대 사회에서 최적의 콘텐츠로 여겨지고 있다. 더불어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진입장벽이 낮기에 솜폼은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으며 많은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로 도모하고 있지만 몇몇 우려도 내포하고 있다. 여전히 콘텐츠 시장에는 가로 형태의 긴 영상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세로 화면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려면 기기를 눕혀야 하는 불편한 UI를 감내해야 했다. 그러나, 솜폼 콘텐츠는 세로 화면의 짧은 영상들을 간결하고 편하게 넘기며 볼 수

### '세로본능 솜폼' 득일까 독일까

있으므로 큰 인기를 얻었고 현재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솜폼 콘텐츠는 특히 홍보 및 정보 전달에 유용하다. 긴 광고는 오히려 집중력을 하락시키고 주의를 분산시켜 확실한 홍보 효과를 내기 어렵다. 그에 비해 짧은 시간 내에 전달하고자 하는 제품의 핵심을 영상에 담는 방식이 소비자들의 이목을 더 집중시킬 수 있기에 많은 기업이 솜폼을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는 추세다. 같은 이유로 뉴스도 솜폼 트렌드에 맞춰가고 있다. 국내 언론사뿐만 아니라 영국 BBC와 같은 해외 언론 매체들도 솜폼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보면 확실히 솜폼은 영상 소비자 유입을 증가시켜 미디어 콘텐츠 시장을 활발하게 만든다는 점

에서 득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솜폼의 이면을 바라봐야 한다. 수많은 솜폼 콘텐츠를 접하면 많은 양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얻어 정보 습득에 있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우려가 생긴다. 더해서, 짧고 강렬한 영상에 익숙해져 길고 복잡한 영상은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사고력과 문해력 증진 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솜폼은 득이 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우리는 솜폼의 편리함과 긍정적인 파급력 뒤에 숨어 있는 문제점들을 의식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지니며 정확한 정보의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준철(문론 2)

### 의화정

### 삶이 당신을 고달프게 할지라도

흔히 듣는 이야기,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은 많다. 그 중의 하나가 영성이다. 나는 몇 년 전부터 영적 각성이 시작되었다. 어차피 인간은 영적 존재감이 있으므로 나만 겪는 과정도 아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탐구심에서 시작을 했는데 영적 진리는 알면 알수록 놀랍다. 간단한 논리로 '진리'를 풀어 검증해 보겠다. 정직하게, 이웃에게 배려하고, 법을 준수하는 바른 시민으로 살아가면 세상에 산재해 있는 위험들로부터 점차 멀어져 안전해 질 것은 자명하다. 교통 법규를 지켜 보행자 신호가 작동할 때까지 기다려 횡단 보도를 걷는 사람은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낮아짐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인생은 만만하고 단순하지 않다.

위에 나열한 덕목들이 일단 내 의지대로 잘 되지 않는다. 세상은 유혹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두 번째 난제는 '불확실성'이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날벼락 같은 사건, 사고에 직면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일은 발생한다. 빠르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환란이 오는가? 이것이 삶에 의문을 갖게 하는 큰 요인이다. 그러나 진리를 터득하고 영성을 갖추어가는 사람은 곤경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 의연하게 마주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인격이라 인식한다. 이런 사람은 강하다. 흔들림이 별로 없다. 이런 아빠와 엄마가 가정 을 이루고 있으면 참 든든할 것이다. 그렇다면 영성은 어떻게 갖추어지는가? 읽고, 묵상하며 참여하면 진리를 알아간다. 즉, 수련 과정에서 터득이 된다. 사람마다 속도는 다르다. 빠른 시간에 되는 사람, 더

딘 사람이 있다. 이 과정에서 지혜와 능력이 실제로 생긴다. 여기가 놀라운 점인데 때로는 스스로 구비된 능력에 놀랄 지경이다. 그러나 이 시점부터 극히 조심해 해야 한다. 그 능력을 진리에 순행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순고한 성자가 되고 역행하는 사람은 괴물이 된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고, 이단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다. 영성은 세상의 많은 의문들을 설명해 준다. 그래서 평안해 진다. 더불어 지혜와 능력도 주어진다. 인간이 불안해하는 것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다. 영안이 열리면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다. 나는 영성을 갖추어 나에게 주어진 교수의 소명을 바르게 운영하고 싶다. 이 글을 읽은 독자 여러분, 그렇다면 당신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문찬스(스마트경영공학부) 교수



### 기자사령

퇴 정기자 장현진(사회과학 3) 수습기자 변은찬(인문 3) 오소현(인문 3) 이채연(C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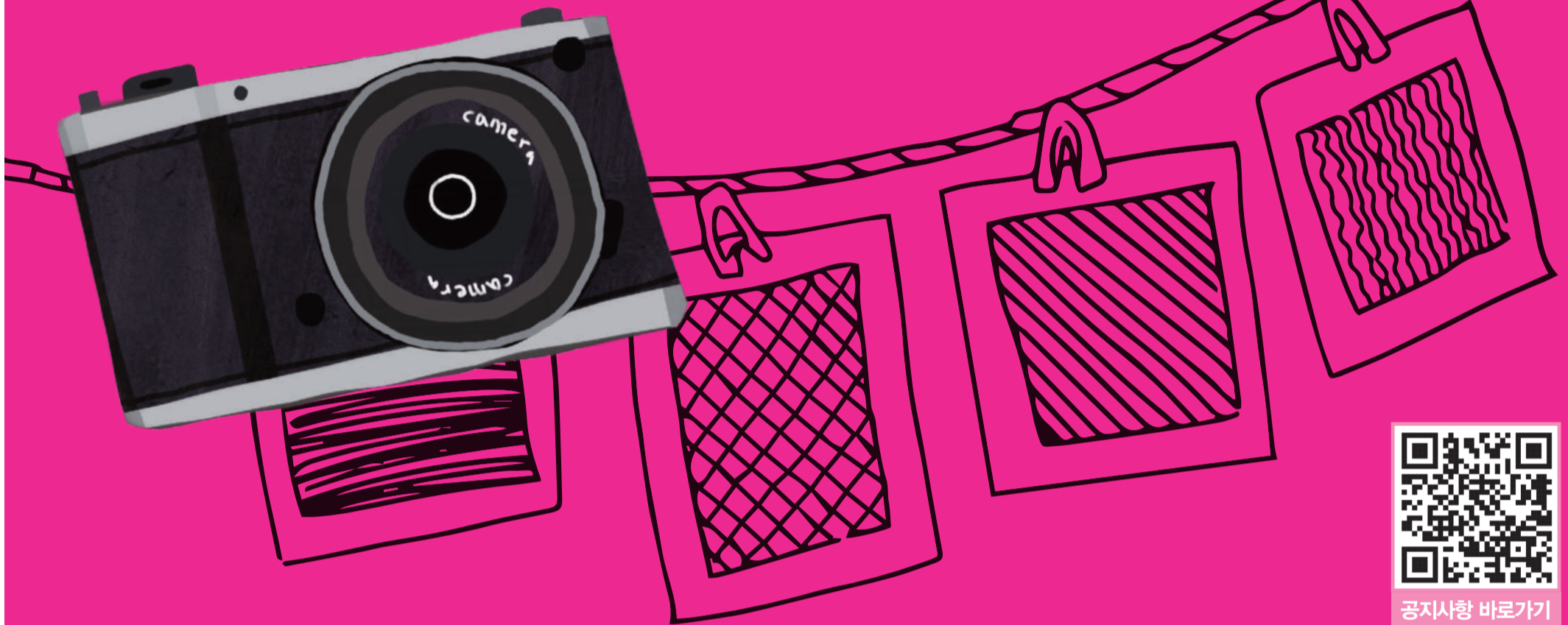
〈한성대신문〉은 교수님의 동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면에 실을 동정이 있으면 한성대신문사(내선 4186)로 문의바랍니다.

한성대신문사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Tel 02)760-4186

발행인 이창원 편집인김주환 박선옥 편집국장 한혜정 디자인 (주)나눔커뮤니케이션

# 제17회 사진공모전

찰칵! 당신의 순간을 보여주세요



공지사항 바로가기

### 모집기간

3월 20일(월) ~ 4월 21일(금)

### 참가대상

본교 전 구성원(학부·대학원 재학생, 교수 및 직원)

### 주제

자유(주제에 제약 없음)

### 제출사항

응모작, 참가신청서  
(교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 ① 온라인 제출 : hansungnews@gmail.com로 제출  
\*응모작 규격 : 장축 4000px 이상의 jpg 파일
- ② 오프라인 제출 : 한성대신문사(중문 우촌관 앞 IBK기업은행 건물 2층)에 직접 제출  
\*응모작 규격 : 8X10in(20.3X25.4cm) 인화 사진

### 수상작 발표

한성대신문 제590호 (6월 12일 발행)

### 시상내역

최우수작(1명) : 상장 및 상금 40만 원  
가작(1명) : 상장 및 상금 20만 원

### 비교과 포인트

대회참가 5pt / 최우수작 20pt / 가작 10pt

### 문의사항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 인스타그램 @hansungnews
- 페이스북 @hansungpresscenter

- ※ 1인당 최대 3점 응모 가능합니다.
- ※ 참가신청서의 파일 이름은 '(제출자 이름)\_제17회 사진공모전 참가신청서'로 합니다.
- ※ 작품의 파일 이름은 '(제출자 이름)\_[작품제목].jpg'로 합니다.
- ※ 타 사진공모전 출품작의 중복지원을 불허합니다.
- ※ 스마트폰, 필름사진, DSLR, 미러리스로 촬영한 사진 모두 규격 준수 시 응모 가능합니다.
- ※ 포토샵 등 합성과정을 거친 사진은 불허합니다. (단, 간단한 색보정은 허용)
- ※ 제출한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심사는 외부 심사위원이 진행합니다.
- ※ 최우수작이 없을 시 가작만 시상합니다.